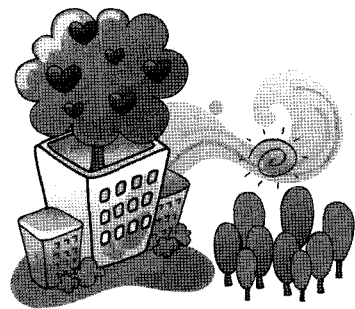


IT기술진흥 중점지원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주재원으로 추진하는 「2010년도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월부터 주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시행계획은 R&D, 인력양성, 표준화, 기반조성 등 4대 부문에 대한 2010년 IT분야 사업(정보통신진흥기금: 전체, 일반회계: 원천 R&D)을 총 망라한 계획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함께 집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의 일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도 IT기술진흥을 위해 총 9,881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9년도 대비 6.1%(568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특히, IT융합, 미래원천기술, 녹색성장 등 미래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부문은 2009년도 대비 7.7%(526억원) 증가되었다.

2010년도 IT기술진흥 추진방향은 창의·혁신 기반의 미래원천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10대 IT융합 전략산업을 맞춤형으로 육성하여 IT융합을 본격 확산함과 동시에, 신수요(IT융합, 감성IT 등)에 대응한 IT인력양성, 세계시장 선점 가능분야에 대한 표준개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①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IT산업원천 R&D 추진에 7,009억원이다.

IT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미래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비중을 2009년 41%(2,331억원)에서 2010년도에는 43%(2,481억원)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까지 3,600억원 규모인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TRI연구개발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출연연

구소의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지원도 강화할 계획으로 올해 미래 IT용·복합 및 원천 기술을 중심으로 1,125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IT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IT를 활용하여 사회전반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Green IT' 기술을 중점 지원한다. 녹색 R&D에 대한 신규투자를 2013년(400억원 이상)까지 2009년(207억원)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010년에는 13개 신규과제 234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② IT융합 본격 확산에 1,082억원이다. IT융합의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 등 10대 IT융합 전략산업을 발굴, 산업별 맞춤형 전략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10대 IT융합전략산업은 자동차, 조선, 의료,

섬유·의류, 기계·항공, 건설, 국방, 에너지, 로봇, 조명이다.

이를 위해 10대 IT융합분야의 중장기 원천 R&D에 2009년 대비 32% 증액된 912억원을 지원하여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IT융합 신시장개척을 추진하게 되며, 또한, 중소기업의 IT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해 IT융합 단기 R&D도 2009년 대비 103% 증액된 16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③ IT융합, 감성IT 등 新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IT인력양성을 위해 779억원이 지원되고,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4세대 이동통신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의 글로벌 표준전략 추진을 위해 265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 사업부문별 투자규모 】

(단위: 억원, %)

구 분	2009년 (A)	2010년 (B)	증감(B-A)	
			금액	비율(%)
합 계	9,313	9,881*	568	6.1
<출 연>	8,613	9,081	468	5.4
• R&D	6,853	7,379	526	7.7
• 표준화	269	265	△4	△1.5
• 인력양성	886	779	△107	△12.1
• 기반조성	605	658	53	8.8
<용 자>	700	800	100	14.3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	700	500	△200	△28.6
•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0	300	300	순증

* 9,881억원 = 정보통신진흥기금 8,642억원 + 일반회계 1,239억원

④ IT인프라 구축 및 대형정책과제 개발 등 기반조성에 658억원이다.

세계적 RFID/USN 클러스터 조성, IT기업에 대한 특허분쟁대응지원 등 IT기업의 R&D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157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난해 9월 수립한 「IT Korea 미래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연계과제 및 일자리 창출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지원사업(26억원)도 중점 추진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2010년도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IT기술발전과 확산을 통한 국가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별로 2월 초부터 신규과제 사업공고 및 접수, 수행기관 선정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IT분야 산업원천 R&D 주요 신규과제를 살펴본다. 전자정보디바이스 전략분야에서 플라스틱 AMOLED는 대면적 AMOLED와 Flexible Display가 융합된 Plastic AMOLED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대효과로 TFT-LCD 이후 향후 10년내 차세대 디스플레이 주력 제품화를 통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다.

초절전형 LED스마트조명은 해외 원천기술에 선제 대응가능한 지능형 빌딩용 초절전 스마트 LED 조명 통합시스템 개발 및 국제 표준화이다. 기대효과로 에너지 50% 절감실현, 개발이후 1조원 수출효과 및 1만명 고용 유발효과 창출이다.

정보통신미디어 전략분야에서는 인터랙티브

UI기반 3D 시스템의 경우, 몰입형 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자유시각형/파노라마형 인터랙티브 3D 시스템 개발이다. 기대효과로 신개념의 세계적 3D 국산기술 확보로 가전산업의 경쟁력 지속유지 및 신시장 창출이다.

지상파 양안식 3DTV방송시스템은 양안식 지상파 3D 방송서비스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및 국내외 표준화, 실험방송 실시하는 것이다. 기대효과로 HDTV시장에서 벗어나 3D 신규시장에서 향후 10년간 생산 26조, 부가가치 7조, 고용 16만명 유발효과 창출이다.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전략분야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용 Class-S 전력증폭기의 경우, 차세대 기지국/단말/중계기 등에 사용되는 저전력/고효율/소형 디지털 전력 증폭기 원천기술 개발인 것이다. 기대효과로 기존 통신시스템 Green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증대 및 부품산업 국제경쟁력 확보 가능하다.

기업용 Smart라우터는 기확보한 MicroFlow 기술을 기반으로 OmniFlow 기술 조기확보 추진하여 기업용 Smart Border 라우터 개발이다. 기대효과로는 선택과 집중으로 차세대네트워크 핵심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여 국내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이다.

SW컴퓨팅 전략분야에서는 자연어 음성인터페이스과제의 경우 스마트폰, 텔레메틱스 등 이동환경에서의 대화형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원천기술 개발이다. 기대효과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다양한 융합서비스 신시장 창출 및

타산업 응용 확대이다.

차세대 IDC 테스트베드는 고효율·저전력 장비 및 솔루션 도입, 전력설비 개선 등 IDC의 Green화 원천 및 상용기술 개발이다. 기대효과로 개발된 핵심기술을 통합적으로 시험·검증하여 기술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이다.

IT융합 전략분야에서는 IT융합 양성자 치료기 과제인 경우, 정밀진단과 병변부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암세포만 피폭·치료하는 IT-의료 융복합 진단/치료기 핵심기술 개발이다. 기

대효과로 기존의 방사선 치료기술의 문제점인 과다피폭을 해결하는 '꿈의 암치료' 원천기술 확보이다.

맞춤양산형 섬유제품 PLM과제는 섬유제품의 기획-디자인-설계-주문-판매-생산-유통에 이르는 전주기를 관리하는 IT-섬유 융합 지원 시스템 개발이다. 기대효과로 MTM(Made-to-Measure)형 IT기반 의류패션 기반기술 확보 및 섬유패션 산업의 재고 Zero 비즈니스 창출이다.

